

2015.04.01

## ‘한-베트남 자유무역협정(FTA) 가서명 완료’

- 지난 28일 한-베트남 자유무역협정(FTA)에 대한 가서명이 완료되었습니다.
- 양측은 한-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양국 정상회담시 실질타결 선언('14.12.10) 이후 기술협의 및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한-베트남 자유무역협정(FTA)의 최종 협정문안을 확정하였고, 금년 상반기 중 정식서명 및 국회 비준 동의 등 필요한 국내절차를 거쳐 조속히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.
- 이번에 가서명한 한-중 FTA 협정문(영문본)이 산업통상자원부 FTA홈페이지(www.fta.go.kr)를 통해 공개되었으며, 한글본은 금번 영문 협정문 공개 이후, 번역·검독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정식 서명 직후 추가 공개될 예정입니다.
- 관련하여 주요내용 요약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# 주요내용

#### 1. 한-베트남 FTA의 의의 및 효과

□ 한-베트남 FTA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인 전략적 FTA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상생형 FTA의 주요사레이자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親중소기업 FTA임

- 우리기업은 주요 소재·부품의 관세 철폐로 중간재 수출 증가효과를 누리고, 베트남은 투자유치 확대에 따른 경제 활성화 효과를 갖게 될 전망
- 또한, 섬유, 자동차 부품, 화장품, 가전제품 등 우리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품목에 대한 베트남 시장을 다수 개방하여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에 기여

# 세인 소식지

www.seincustoms.com

2015.04.01

## □ 또한, 빠르게 성장하는 베트남 내수시장의 기업 경쟁환경을 개선하여 우리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

- 日-베트남 EPA('09.10월 발효) 체결로, 일본보다 불리한 경쟁조건에 직면한 우리기업들이 보다 동등하게 경쟁할 여건을 확보\*[석유화학]
- 자동차 부품, 철강, 합성수지 등 우리나라 수출 주력 품목의 양허를 획득하여 하였을 뿐만 아니라, 건설, 도시계획·조경, 기계·장비임대 분야를 추가 개방하여 베트남의 도시화·경제발전에 따른 건설시장 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[기계]

## 2. FTA 협정문 구성

□ 한-베트남 FTA 협정문은 서문 및 총 17개 챕터(부속서 포함)로 구성

구분	챕터 명
상품관련	① 상품, ② 원산지(PSR 포함), ③ 통관 및 무역원활화, ④ 무역구제, ⑤ SPS(위생·검역), ⑥ TBT(기술장벽)
서비스·투자	⑦ 서비스 (금융, 통신, 자연인의 이동 부속서 포함), ⑧ 투자
규범·협력	⑨ 지재권, ⑩ 경쟁, ⑪ 투명성, ⑫ 전자상거래*, ⑬ 경제협력
총칙	⑭ 일반조항, ⑮ 예외, ⑯ 분쟁해결, ⑰ 제도 및 최종 조항

2015.04.01

### 3. 상품 양허

□ (상품) 한-아세안 FTA를 바탕으로 양측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'12년도 수입액 기준 한국 94.7%-베트남 92.4%로 자유화수준 합의

#### □ (베트남측 시장개방)

- 우리의 주요 수출품인 섬유(면직물·폴리에스터단섬유직물 등)등은 3년
- 변압기, 전동기, 믹서, 합성수지, 항공기부품 등은 5년
- 철도차량부품, 선재, 원동기, 의약품 등은 7년
- 자동차 부품, 화물자동차(5톤~20톤), 승용차(3000CC 이상), 화장품, 전기밥솥, 에어컨 등은 10년 관세철폐 확보

*\*\*일-베 EPA 발효('09년)로 대기업보다 베트남내에서 가격경쟁력이 불리하였으나, 우리 주요 수출 품목 중심(가전·자동차부품·화장품 등)으로 동등 내지 유리한 조건 확보*

#### □ (우리측 시장개방)

- 농수임산물 시장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△양허제외(기준세율 유지), △저율관세할당(TRQ), △장기관세철폐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하여 국내 관련 산업 피해 최소화
- 쌀(협정 대상 제외)·고추·양파·녹차·오징어 등 주요 민감 농수산물의 경우, 한-아세안 FTA에 추가한 시장개방은 없음

*\*\* 열대과일(구아바·망고 등)·마늘(건조/냉동)·생강(미분쇄·미파쇄(건조/기타), 파쇄·분쇄(신선·냉장/건조/기타))·돼지고기(삼겹살/기타(냉동)) 등은 10년 철폐, 천연꿀·팥·고구마전분은 15년 철폐*

- 對베 수입액이 가장 큰 새우(1.4억불)의 경우, 한-아세안 FTA와 동일하게 관세철폐가 아닌 저율관세할당(TRQ)를 제공

☞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FTA홈페이지 ([www.fta.go.kr](http://www.fta.go.kr))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